

理定心法과 修心の 궁극적 性向

高南植*

目次

- | | |
|----------------|--------------|
| I. 서론 | IV. 眞心으로의 修心 |
| II. 理定心法에서의 心 | V. 결론 |
| III. 新運之理와 眞사상 | |

I. 序論

「목적(目的)」은 대순사상의 궁극적 세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지(宗旨)」 「신조(信條)」 등과 함께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은 종지 신조 등과 일련의 연계성을 갖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목적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크게 인간과 세계라는 부분으로 갈라지고 인간적 부분은 다시 정신개혁과 인간개조의 두 부분으로 대별되는데 여기에서 정신이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있다. 무자기 상태의 정신개혁이 없다면 지상신선으로의 인간개조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점에서 둘의 관계는 선후의 면으로 볼 수 있다.

목적에서 일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마음이다. 다음으로 인간 그리고 세계로 목적의 대상이 전개된다. 마음은 우주 안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정신을 개혁한다는 것은 인간 내면의 마음 작용을 새롭게 연다는 것이다. 인간은 「말은 마음의 외침이요 행실은 마음의 자취」라는 말처럼 마음에 따라 생활하는 존재이므로 먼저 정신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 정신은 어떻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계 바꾸어나가야 하는가 했을 때 그 답은 무자기(無自欺)가 된다. 이것은 속임이 없는 상태이다. 대순사상에서 외부적 힘에 의해 정신과 인간 그리고 세계가 변화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정신개벽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을 개벽하여 만드는 역동적 노력이 내재되는 차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의 의미를 일련의 타 요목간의 상호 관계속에서 생각할 때 무극도 창도와 때를 같이 해 발표된 「각도문(覺道文)」의 「이정심법(理定心法)」에 주목해 천지공사(天地公事:1901-1909)로 변모된 신문지리(新運之里)에 따르는 세계상을 선천(先天) 후천(後天)의 교체기와 진경(眞境)속에서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리(里)에 따른 마음의 존재양상이 대순사상에서 어떠한가와 특히 궁극적 세계인 진경에 맞춰 수심의 궁극적 성향을 진심(眞心)으로 귀결하는 것으로 찾아 보았다.

Ⅱ. 「理定心法」에서의 心

일반적으로 종지 신조와의 관계를 「무자기(無自欺)」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종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리 체계이며 목적과 연계성을 갖는다. 종지의 도통진경은 종지에 속하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차적 단계를 나타내며 이것은 목적에 보이는 정신개벽 인간개조 세계개벽과 통하는 차원이다. 종지의 한 부분인 도통진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무자기와 음양합덕의 연관성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논리에 따라 정신과 마음이 균형잡힌 상태를 이룬다는 면에서 관련된다. 정음정양은 대순사상에서 음양합덕을 이루기 위한 음양의 조건이다. 음양의 관계가 상호 균등한 상태에서 합덕하는 것이다. 정음 정양에서 정(正)은 바르다는 것으로 이것은 속임이 없는 진실한 상태를 말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속임이 있다면 음양 사이에 평등성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정음 정양이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자기는 음양합덕에 있어 기저가 되는 개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무자기와 신인조화의 관계는 신과 조화를 이룬 인간의 본질인 정신을 먼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연관된다. 신인의 조화(調化)는 조화(調和)와 조화(造化)의 합자이다. 신과 인간이 조화(調和)를 이룬다는 것은 평등과 화합을 말하고 조화(造化)를 이룬다는 것은 일을 창출하고 만들어 감을 말한다. 여기에 있어 인간의 측면에서 마음에 있어 속임이 있다면 신인조화의 의미는 구현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인간과 신의 관계에 있어 신이 인간의 마음을 통해 교감함으로 마음에 속임이 있다면 신과 인간 사이의 조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무자기는 신인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자기와 해원상생의 상관관계는 원(冤)이라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원이 무자기가 아닌 상태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남을 속이려 하는 데서 원이 시작됨을 찾게 된다. 진실성은 원한을 푸는 요소이며 상생을 이루어나가는 초석이 된다. 상생은 그것이 무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존의 논리이다. 무자기와 도통진경의 관계는 정신의 차원에서 도통진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무자기라 할 수 있다. 진경의 상태는 속임의 차원과는 반대되는 경지이다. 도에 통한다거나 진경의 차원은 거짓과 속임이 있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무자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위상이다.

다음으로 신조는 사강령과 삼요체로 되어 있고 사강령은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이다. 삼요체는 성 경 신이다. 이중 정신과 일차적으로 관계되는 사강령의 안심과 삼요체의 성경신은 무자기를 이루는 과정이 된다. 무자기 진심이 목적으로서 정신과 관련된 궁극적 경지라면 이것은 마음가짐의 최종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기는 신조의 지향점이 된다. 신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목적중 인간과 직접 관련된 것은 무자기 정신개혁과 인간개조 지상신선실현인데 신조 실천의 궁극적 목표가 정신개혁에 있고 신조의 실천은 무자기를 이루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무자기를 종지 신조와의 관계에서 개괄해 보았다. 다음으로 무자기를 각도문의 나타난 내용과 연관지어 보고 수심의 지향할 바를 찾고자 한다.

「각도문」은 1925년에 발표된 것으로 무극도 참도 후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며 도에 대한 논의와 청화오만년 용화선경에

같이 가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므릇 성인의 경전은 문장의 색채를 구하지 않고 그 진리를 구했으며 진인의 마음은 그 실을 구했지 겉꾸밈을 구하지 않았다. 물상의 사리를 구한다면 그 천연을 구하고 조작을 구하지 않았다.(夫聖人之經典 不求文章之色彩 而求其眞理 眞人之心 求其實而不求外飾 求其物之事理 則求其天然而不求造作也)

(2) 그러므로 성인은 마음을 밝게 해서 도에 달하였고 남에게 소문나기를 구하지 않았다. 책에서 문장의 색채를 구하지 않고 옷에서 무늬를 구하지 않는다. 문장에서 구하는 것은 성인의 심법이나 얻기 어렵고 겉꾸밈에서 구하는 것은 성인의 진실이나 얻기 어렵다.(故聖人明心達道 而不求聞達 書不求文章之色彩 衣不求綾羅也 求於文章者 聖人之心法 難得 求於外飾者 聖人之眞實 難得)

(3) 크도다 성인의 도덕이여 원형이정의 대경대법이기도다. 도는 천지를 바르게 하여 수는 모든 법을 정하고 이는 심법을 정하니 정대광명하게 선불유에 대도가 바르게 통한다. 이런 까닭으로 천명은 선후를 대신해 말하고 천도 이기의 생성은 크고 자극하고 성스럽도다.(大哉 聖人之道德 元亨利貞 大經大法 道定天地 數定千法 理定心法 正大光明 仙佛儒 大道 正通 是以 天命代於先後 天道理氣生 大矣 至矣 聖矣)

(4) 오직 나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을 받들어 대도를 밝히고 대덕을 이어 대업을 넓히니 청화오만년 용화선경에 하나하나 함께 밟는 위치라면 천만다행함이 깊겠다.(惟我奉教後學 以光大道 以承大德 以弘大業 清華五 萬年 龍華仙境 一一同躋之地 千萬幸 甚焉) (교운 2장 33절)

위의 각도문은 그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경전과 진인의 마음에 나타난 도
- (2) 성인의 심법이나 진실을 구하기는 쉬운 것이 아님
- (3) 도의 작용을 밝힘
- (4) 후학들과 함께 선경에 가는 경지에 오르기를 바램

도를 깨닫는 글인 각도문은 도에 대한 내용과 도를 구하기 위해 인간이 찾아야될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1)과 (3)에 나타나는데 (1)은 도를 깨닫기 위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3)은 도의 작용을 밝히

고 있다.

이처럼 각도문을 통해 도에 대해 이해하고 도의 실상을 깨닫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극도의 목적과 이어지는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적은 도의 실상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위 각도문의 (3)에서 「도가 천지를 바르게 하여 수는 모든 법을 정하고 이는 심법을 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중에서 「리가 심법을 정했다(理定心法)」는 부분은 이와 심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정(定)이라는 단어에서 리가 심(心)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천도의 이기가 생성하는 것이 크고 지극하고 성스럽다」 하여 도로부터 나온 이기의 작용으로 많은 것들이 정해진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 사물의 현상적 존재란 실상 그 질료로서의 기의 존재였다. 그런 점에서 물(物)은 그 질료인 기로 대치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바로 리는 기가 있기 전에라도 있을 수 있지만 리가 없을 때에 기만이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리에도 앞서 이해한 리의 두가지 뜻(所以然之理와 所具之理)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일정(一定)한 결과가 생기게 되고 또 일정한 형식이 먼저 있어야만 그러한 류(類)의 사물이 현존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¹⁾

한편 (1)에서의 내용은 경전에서는 진리를 진인의 마음에서는 그 실을 볼 것이며 사물에서는 천연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각도문에서 이야기한 진리, 실, 천연이 목적에서 언급한 정신개벽에 있어 무자기 곧 스스로 속임이 없다는 의미와 통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속임이 없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으로 「진(眞)」으로 표현된다. 「진리」, 「진실」, 「진법」, 「진경」 등의 단어와 통하는 의미이다. 무자기는 대순사상에서 인간이 지향해 이루어야하는 마음의 궁극적 차원으로 종지 신조 등에서 나타나는 마음과 관련된 개념의 최종 단계이다. 여기에서 속임의 반대 의미인 정직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기심(欺心)의 반대인 진심이라는 마음의 상태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자기는 정직 참됨이라는 「진(眞)」으로 귀결되

1) 尹絲淳, 『퇴계철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50면. 이것은 퇴계의 입장에서 리가 사물을 定함을 나타낸 것으로 사물과 함께 존재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리의 작용으로부터 定해지는 상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며 대순사상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이정심법(理定心法)」이며, 둘째는 「진(眞)」 즉 「속임이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무자기의 마음 상태와 관련된다. 그러면 리의 유래는 어떠한가.

리가 비록 높으나 무극 태극의 곁에서 나온다(理雖高 出於無極太極之表)(제생 43절)

위의 구절은 리가 무극과 태극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동양철학의 우주 생성 원리인 무극과 태극을 통해 표출되는 우주의 변화를 이치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물론 이기론에 대한 상제의 논의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²⁾ 「리가 높으나」에서 기(氣)와 의 상대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치에 따라 세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순사상에서 이에 대한 부분은 무극 태극등으로 설정된 형이상학적 상태를 통해 음양 오행등이 차후 단계에서 이야기 될 수 있고 주렴계가 주장한 「태극도설(太極圖說)」와 연계되며 기를 표현하는 단서를 주고 있다.

「이정심법」에 입각해 볼 때 리(理)에 의한 세계의 운행과 그러한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위치에 있어 수심의 지향할 바를 찾을 수 있다. 각도문에 「이정심법(理定心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리가 심법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의 법이 외부적 리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으로 삼계의 리가 마음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체는 어떻게 해서 객관

2) 리와 기에 대한 비교를 통한 우위는 경전상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기의 작용도 일상에서 중요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

3) 퇴계철학에서의 이기론을 채무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퇴계사상은 한 방면으로는 주자의 이기론을 계승했으나 다른 한 방면에서는 이기를 「理貴氣賤」, 「理尊無對」, 리는 「能發能生」등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즉 理氣上下位觀으로 리를 중시하고 기를 경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퇴계학 중의 특색이다. 율곡철학의 입장은 1)理氣不相雜 2)리가 기의 본이 되는 理氣之妙 3) 理氣形無爲 氣有形有爲 하여 리는 불변이나 기는 가변이라는 입장에서 氣發理乘·變化氣質을 주장하는 것이다. 율곡의 成聖의 방법은 가치론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誠明과 致中和에 있다. 이것은 盡理盡性하는데 그 뜻이 있다. 盡理盡性是 主理的 사상이니 엄격히 말하면 율곡역시 주리론자이다. 그러나 리의 발현이 기로 말미암아 되고 또 기에는 淸濁이 있으므로 율곡은 變化氣質을 주장하는 것이다. 율곡의 「氣發理乘」으로써 율곡을 主氣論이라고 한다면 이는 미흡한 견해이다.(蔡茂松, 「퇴계 율곡철학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174·175면)

세계의 사물에 접하며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적절하게 행동하는가? 그것은 리를 통해서이다. 인간은 리에 의해 인도되며, 리에 의존하고, 리를 매개로 하여 윤리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자연세계에 대응해 간다. 리는 공공적이며 보편 타당한 것으로서 주체에게 그 실천을 강요하는 초개인적 성격을 지니므로 하늘의 이치(天理)라고 불리기도 한다.⁴⁾ 특히 「정한다」는 말에서 리가 심에 우선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심에 있어 리를 우위적 위치에 두고 있다. 이정심법(理定心法)이라 하여 마음의 법을 리영향하에서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내어 마음에 대해 그것의 존재가 어떠한 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것임을 대순사상은 표명하고 있다. 마음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리는 마음이 있기 이전에 이미 삼계에 작용하는 원리임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때 열리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에 기인해서 더욱 궁리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열린다(因其已之知理 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제생 43절)

이치를 계속 궁구하는 노력의 중요성과 마음이 더 크게 열려 나가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격물치지의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의 리에 따른 자발적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마음이 이치의 궁구라는 「거리공부(居理工夫)」를 통해 작용하는 연계성을 보여준다. 앞에서 이가 심법을 정한다는 「이정심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심즉리(心卽理)」 「성즉리(性卽理)」 등의 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리가 심법을 정한다(理定心法)」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은 리와 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마음의 삶과 죽음을 제어하는 것은 리이다. 그러므로 「심즉리」 「성즉리」라 한다. 마음은 성과 정의 이중 구조를 갖는 것으로 되어 마음은 성과 정을 통솔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그것은 선(禪)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에 리(理:性)라는 무게를 더한 것, 애초부터 분열의 계기를 내포한 것이며, 그런 만큼 자유의 폭이 좁아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래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제약도 없고 구속도 없이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가지고

4) 아라키 겐고 지음 김석근 옮김, 『불교와 양명학』, 서광사, 1993, 59면.

공동체를 구성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관습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이상, 이들과의 복잡한 대응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상호 연관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자유란 바로 리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⁵⁾

위징(魏徵)은 밤이면 옥경에 올라가 상제를 섬기고 낮이면 당태종(唐太宗)을 섬겼다 하거니와 나는 사람의 마음을 뺏다 넣었다 하리라.(교법 3장 33절)

이것은 어떠한 외적 작용에 의한 이치를 따라 마음이 인계와 신계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제⁶⁾의 권능을 나타낸 것으로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정의 방법을 따라 마음이 세계를 달리해 육신을 떠나 이동할 수 있는 면을 엿볼 수 있다. 즉 사람의 마음을 뺏다 넣었다하는 절대적 권능자의 능력에 의해 어떤 이치가 그 속에는 내재되어 일어난 것이다. 그와 같은 작용에 의해 위징은 낮이면 인간 세상에서 당태종의 신하가 되고 밤에는 상제가 쓴 이치를 따라 옥경에 올라가서 상제를 섬겼다는 것이다. 마음은 삼계와 상호 유기적 관련성하에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타율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리가 정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리에 따라 존재한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자유의지로 표명되듯 자율적 힘을 마음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삼계의 리의 작용하에 마음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보기로 한다. 마음의 속성을 알아보는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인간의 육신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인간에 대한 세계라는 외적 환경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세계의 이치에 영향을 받으며 인간은 존재하며 인간의 마음은 그 속에서 세계 속에 위치한다.

공우는 종도들이 모두 상투를 틀고 있는데 자신이 삭발하였기에 그들과 싸이기 어려우므로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머리를 길러 술잎 상투에 갓 망건을 쓰고 다니다가 금구(金溝)를 지나던 어느날 일진회의 전 동지 십여명을 만나 그들의 조소를 받고 머리를 깎여 두어달 동안 바깥 출입

5) 아라키 겐고 지음 김석근 옮김, 『불교와 양명학』, 서광사, 1993, 60면.

6) 상제는 우주를 주재하는 최고의 신으로 나타난다.

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중이었던다. 돌연히 상제께서 찾아오셔서 한동안 출입하지 않는 까닭을 물으시니 공우가 사실 그대로 아뢰이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 하리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공우를 데리시고 구릿골로 떠나셨도다.(교법 2장 10절)

일진회에 가입해 머리를 삭발해 상제의 종도들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외형인 머리는 그 다음임을 보이고 있다. 상제를 따르는 일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과 인간에게 있어 가치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음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치에 따라 마음이 정해지는 논리 안에서 마음의 속성은 어떠한가를 보기로 한다.

첫째, 마음은 천지의 중앙이다.

천지의 중앙이 마음이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에 몸이 마음에 의거한다(天地之中央 心也 故東西南北 身依於心)(교운 2장 66절)

외적 세계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존재하지만 그곳은 천지의 중심이 된다. 외적 세계의 이치가 마음에 감응되어 마음을 중심으로 인간은 법리에 맞게 작용함으로써 천지의 중심이 되어 존재하고 천지인 삼계의 수 많은 일들을 관장하게 된다.

둘째, 마음은 천지보다 더 크다.

마음은 귀신의 추기 문호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출입하고 도로를 왕래하는 신이 혹은 선하기도 혹은 악하기도 하니 선한 것은 스승 삼고 악한 것은 고치라.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더 크다.(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 神 惑有善 惑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행록 3장 44절)

마음에 신이 작용하고 그러한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선악 판단을 해 스승삼고 고침으로써 천지보다 큰 상태에 갈 수 있다. 선악에 대한 구분과 스승삼고 고치지 않는다면 이를 수 없는 일이다. 천지에 이치가 존재해서 일이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 이치에 맞게 경위를 따라 자신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간다면 천지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인존의 상태에서 도에 통하는 면모를 가질 수 있다.

세째, 마음은 천지인 삼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한다.

하늘이 우로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방의 원한이 있고 땅이 수토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물의 원한이 있다. 사람이 덕화를 박하게 하면 만사에 원한이 있다. 하늘의 쓸과 땅의 쓸과 인간의 쓰는 것이 마음에서 통제된다.(天用雨露之薄 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 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 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 統在於心)(행록 3장 44절)

위에서 천지인이 각각 나타내고 있는 우로 수토 덕화 등의 표출에 있어, 인간 마음이 천지인 삼계에서 주체적 중심이 되어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 마음의 속성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찾는 실천적 성향을 강조한 「포유문(布喻文)」에서 찾을 수 있는데 「포유문」에서는 「심령(心靈)」을 통하면 귀신과 더불어 수작할 수 있는 차원을 밝히고 있다.

심령이 통하면 곧 귀신과 더불어 수작하고 만물과 함께 차례를 한다(心靈通 則鬼神可與酬酌 萬物可與俱序)(교운 2장 41절)

위에서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천하 만물의 이치에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신이 마음이 일정한 차원에 오른 인간에게 작용해서 일어나는 신이한 경지이다. 포유문에서 심기를 바르게 하고 의리를 세워 심령을 구하라고 한 것(正吾之心氣 立吾之義理 求吾之心靈)은 귀신과 통하고 만물과 차례 짓는 근원이 되어서 이다. 마음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포유문의 내용은 귀신이 심령과 같이 응한다는 의미와 함께 수심(修心)에 있어 일련의 자세를 알려 주고 있다.

또 공우를 데리고 정읍으로 향하실 때 상제께서 “마음으로 천문지리를 찾아보라” 하시기에 공우가 머리를 숙여서 풍운조화를 생각하니라. 상제께서 별안간 공우를 돌아보시며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 찾아라.” 이르시니 그는 놀라서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그릇되게 생각한 것을 뉘우치니라. 그는 다시 천문지리를 마음으로 찾다가 정읍에 이르니라. 이날 밤에 상제께서 눈비가 내리는 것을 내다 보시면서 공우에게

“너의 한 번 그릇된 생각으로써 천기가 한결 같지 못하다.”고 책망하셨
도다. (공사 1장 33절)

위 인용문에서 인간의 마음에 따라 일기의 변화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공우가 풍운조화를 생각해서 일어난 자연현상으로 인간이 결정한 마음에 응해 외적 세계의 변화가 나타남을 찾을 수 있다. 상제의 권능에 의한 것이지만 개인의 사적인 생각에 따라 천지의 운행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볼 때 심법의 중요성을 찾게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변모하는 시대상 속에서 마음이 우주적 이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편 마음은 천지의 중앙이고 선악(善惡)을 판단하여 수양함으로써 우주의 주체적 중심에 설 수 있는 속성을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넷째 마음은 성수(星宿)와 관련되며 성수의 영향을 받는다

신이 모든 물상과 인간에 밀접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인간의 탄생을 얘기할 때 천상(天上)의 성수와의 유기적 관계를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성수에 응해 있는 신적 존재⁷⁾와 인간 생성과의 긴밀한 이치를 찾게 된다.

하늘에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 아홉 개의 별이 있다. 인간에게는 천생 무령 현주 정중 혈단 뇌뇌 단원 태령 영동 구령이 있다. 하늘에는 허정 육순 곡생 의 삼태가 있고 인간에게는 태광 상령 유정의 삼정이 있다. 하늘과 인간은 하나가 된다. 별과 영혼은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인간을 따라서 내 몸을 수호해준다. 위에서는 비취 주고 아래에서는 응한다.(天有貪狼 巨文 祿存 文曲 廉貞 武曲 破軍 左輔 右弼 九星 人有天生 巫鈴 玄珠 定中 子丹 雷雷 丹元 太靈 靈童 九靈 天有虛精 六淳 曲生 三台 人有太光 爽靈 幽精 三精 天人爲一 星靈不二 相隨人間 守護吾身 上照下應)(교운 2장 42절)

위에서 마음과 관련이 있는 영(靈)과 정(精)이 구성(九星) 및 삼태성(三台星)과의 관계에 있어, 「하늘과 인간은 하나가 된다 별과 영은 둘이 아니다 서로 인간을 따른다(天人爲一 星靈不二 相隨人間)」라는 내용이 나타내듯이 연관되고 있다. 한편 마음과 대비되는 몸에 있어서, 오장이 오행의 기를 갖

7) 대순사상은 일월성신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본다.

고 인간의 육체에서 청기 적기 백기 흑기 황기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은 간 가운데 청색 기운이 좌측 편을 따라 거둬나와 되었다. 화는 심장 가운데 적색 기운이 앞얼굴을 따라 거둬 나와 되었다. 금은 폐가운데 백색기운이 우측 편을 따라 거둬 나와 되었다. 수는 신장가운데 흑색 기운이 등위를 따라 거둬 나와 되었다. 토는 비장 가운데 황색기운이 이마위로 거둬 나와 되었다.(木 肝中靑氣 氣從左便 重出化爲 火 心中赤氣 氣從前面 重出化爲 金 肺中白氣 氣從右便 重出化爲 水 腎中黑氣 氣從背上 重出化爲 土 脾中黃氣 氣從額上 重出化爲 百節氣從 千脉貫通)(교운 2장 42절)

목 화 금 수 토가 각각 청적백흑황(靑赤白黑黃)⁸⁾의 기로 몸에 작용해 몸의 모든 마디에 기가 따르고 맥이 뚫려 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몸에 오행의 기가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몸의 오장이 오행의 특성을 각각 갖고 있다는 것은 심신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할 때⁹⁾ 마음이 외부적 요소들(성수, 오행의 기)의 영향하에 위치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요컨대 마음은 신적 존재에 의해 관찰되고 판단되는 위상을 삼계에서 갖고 있는 것이다. 삼계가 신적 존재에 의해 운행되고 있음을 볼 때 삼계의 상황 변화에 따라 마음이 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마음은 측면을 달리해 마음을 중심으로 볼 때, 두가지 위상으로 삼계에서 존재한다. 첫째 삼계안에서 외적 요소와의 관련성속 존재한다. 둘째 삼계 내에서 주체적 위상하에 역동적 작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삼계에 대한 「리(理)」의 지배가 천지공사에 따른 새로운 삼계로의 변모속에서 인간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8) 방위에 있어 청제 적제 백제 흑제 황제 장군이라는 신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다산의 예로 볼 때, 다산은 심신묘합의 인간존재에서 인간내면의 주체인 마음이 신체의 형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욕구가 없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다산과 성리학의 입장사이에는 심개념에 관한 인식에서 먼저 욕(欲, 願慾)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쟁점으로 제기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금장태, 「다산실학탐구」, 소학사, 2001, 106면)

Ⅲ. 新運之理와 「眞」 사상

상제는 천지공사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후천의 운(運)을 연다고 하였다. 달라진 운에 따라 이제 새로운 리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신운(新運)에 따른 삼계의 변화는 새로운 도수(度數)와 리에 맞춰 운행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첫째로 선천과 후천이 교체되는 과도기적 상황하에서 시운(時運)의 변화에 따른 면과 둘째로 「각도문」에 나타난 「진(眞)」이념에 주목해 변모된 세계상속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이중 두 번째 관점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수심의 궁극적 성향과 관련하여 살펴 본 것이다. 기존 선천세계의 어떤 질서가 인간에게 작용해 인간 마음을 다스렸다면 후천개혁과 천지공사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아래 인간들에게 새 가치관이 요구되며 이것은 마음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첫째 신운(新運)에 따른 변모된 시대에 맞춰 새로운 리가 작용한다.

변모되는 시대를 언급한 내용에서 새로워진 삼계의 이치를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이정심법(理定心法)」이 보여주듯 인간 마음의 달라진 모습을 필요로 한다. 이점을 몇 가지 시대상의 변화 속에서 보기로 한다. 새로운 시대는 개혁시대, 인존시대, 신명시대, 성인시대, 해원시대로 나타난다. 먼저 시대적 변모는 개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절)

새로운 시대는 천지가 성공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 열리며 이 시기에 개혁이 따라 있게 된다. 개혁된 세계는 참된 자를 요구한다. 복과 삶을 구하

는 이는 성숙되기 위해 개혁시대의 외부적 요소들의 작용에 자신을 참된 자로 맞게 만들어서 의로운 이로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인 인존시대(人尊時代)는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위에서 제시한 참된 자로서의 가치를 품성화 해야 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교법 2장 56절)

인존시대는 천지보다 인간이 더 존귀한 시대임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마음을 부지런히 하는 일이다. 마음을 새로워진 환경에 맞추어 나가야 인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시대는 달라진 환경을 만들고 그러한 환경은 다시 인간과 인간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된다.

요컨대 이제 인간 마음이 그 방향성을 새롭게 바꾸어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은 거짓 된 자와 대비되는 참된 이로서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자기 상태의 인간이 참된 자이고 이것은 진실된 인간이 된다.

인존시대와 함께 나타나는 시대가 신명시대(神明時代)이다. 신명시대는 인간에게 또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에 인간의 마음이 신명에 의해 통제받는 변모가 있게 된다.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

신명이 인간의 죄를 살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새 기운이 돌아 닦친다는 것은 개혁시대 천지공사에 따른 세계가 열리는 천하의 변화를 말한다. 죄가 아닌 선으로써 복을 받아 살게 되는 세계상을 가리킨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 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마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교법 2장 44절)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 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이니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야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꼭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있나니라. (교법 3장 4절)

신명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을 꺾어보는 존재임이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갇는다」는 내용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 신명은 인간의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진리에 지극한 존재가 되고 이를 통해 천지공사에서 진위를 잘 가려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신명이 인간의 뱃속에 드나들며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쓴다는 부분은 인간의 마음자세에 따라 변모될 수 있는 인간 상황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목적에 무자기 정신개벽을 거쳐 인간개조에 까지 연결되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개조를 통해 지상에 신선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는 신적 존재가 뱃속에 드나들어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신명으로 작용하는 리를 보여주고 있다. 퇴율(退粟)은 스스로 성리학의 이론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기론(理氣論)이 갖는 한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존재 자체는 리와 기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성(神明性)을 바탕으로 한다. 신명성이란 인격성을 가진 주재자로서 그 신명성이 작용의 주재자이자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기와 함께 이기의 주재적 성격으로서의 신명성이 논해져야 한다.¹⁰⁾

다음으로 시대상의 변모는 성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후천의 세계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

10) 이현중, 「한국철학의 역학적 조명」, 청계, 2001, 270면.

도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 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교법 3장 26절)

선천시대는 중고(中古)이래로 죄로써 먹고사는 영웅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천도(天道)를 자각하고 그것을 천명(天命)하는 역사적 사명을 천명으로 하여 인류 역사에 나타난 존재가 성인(聖人)이다. 따라서 성인이 부여 받은 천명의 구체화가 곧 천도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천도는 그 자각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성인이 자각한 성인지도(聖人之道)일 수밖에 없다. 『주역』에서 역도(易道)를 성인지도 또는 성인지의(聖人之意)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런데 천도의 천명은 역사라는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생명체가 생성하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성인의 측면에서는 성통(聖統)이라는 성인의 전수 계통을 형성하게 된다. 『주역. 계사하』에 의하면 복희로부터 신농, 황제, 요, 순, 우, 탕, 기자, 문, 무, 주공, 공자로 성통이 전개된다. 맹자도 요와 순으로부터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로 성통이 전개된다고 논하였다. 그런데 「계사하」의 성통에 관한 내용을 보면 성통의 전개가 중괘(重卦)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복희가 처음으로 괘를 그어 역도를 천명한 것으로부터 성통이 전개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성통의 근거가 역도에 있으며 성인지도의 내용이 곧 역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성통을 보면 성통을 구성하는 대 부분의 성인들이 곧 당우 시대부터 춘추 시대까지의 역사를 선도했던 제왕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성통과 왕통(王統)이 일치되면서 전개된 역사가 바로 선진(先秦)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통을 따라 전해진 성인지도의 내용이 바로 천도의 인간 주체화의 원리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¹¹⁾ 위의 인용문에서 성인시대(聖人時代)의 새로운 운기를 맞이하게 되어, 인간의 가치관이 선을 추구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변화가 있어야

11) 이현중, 『한국철학의 역학적 조명』, 청계, 2001, 329-330.

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달라진 세계는 성인들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시대이므로 중생들도 그를 따라 선으로 생활해야하는 필연성을 볼 수 있다. 이에 영향 받아 인간이 주체적 자아로서 성인과 같은 바탕이 되도록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강조한다.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락을 취하여야 되느니라.
(교범 1장 23절)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 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 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역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교운 1장 16절)

본질인 마음은 성인과 같이 가져야하고 도락은 영웅들이 일을 이루는 방법을 따라야 됴를 보이고 있다. 성인의 도는 호생(好生)의 덕으로 귀결되고 그 구체적 표상은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이념을 통해 실천되는 상생 논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상생의 도로써 화민정세(化民靖世)한다고 하였는데 상생의 리(理)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생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삼계를 이루기 위해 선천시대 오행(五行)속에 내재되어 있던 오행의 운행을 상극을 없애 상생으로 전환시키는 천지공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계상이다.

수가 화에서 생하기 때문에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교운 1장 66절)

앞에서 리가 무극 태극의 표면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전개과정속에서 음양과 상관되는 오행의 원리 가운데 수화(水火) 상극을 제거하는 일련의 신이(神異)한 능력하에서 수가 화에서 나오고 화가 수에서 나오는 상생적 순환이 있게 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상에 있어 상생 윤리를 실천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원일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내용으로도 나타난다. 원일의 생각은 어떠했던가를 보고 그 속에서 상생의 이치를 찾아 보기로 한다.

신 원일이 개벽공사를 빨리 행하시기를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 이냐”고 말씀하셨으며 원일이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말하면서 간청하니 상제께서 심히 괴로와 하셨도다.(공사 2장 24절)

무신년 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金岩) 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 상제께서 원일을 곧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도다. 원일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자기 동생의 집이 폭우에 파괴되고 그 가족은 원일의 집에 피난하였도다. 원래 원일의 아우는 상제를 믿지 아니 하였으며 언제나 불평을 품었도다. 그러나 그는 이일을 당한 후부터 두려워서 무리한 언사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였도다.(공사 2장 27,28절)

원일의 이야기는 상제의 권능으로 천지개벽을 속히 이루어 세상의 무도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일 자신의 개인적 욕심이 내재된 주장이 되고 그의 의견을 따를 경우 개벽이라는 갑작스런 변화속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재난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상제는 직접 홍수를 지어 보임으로써 원일의 그릇된 생각을 고치게 하였고 개인적 생각으로 호생의 덕을 해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의 도를 말하고, 대인을 배우는 자는 억조 창생에게 피해를 끼치는 응패의 술을 찾아서는 안됨을 밝히고 있다. 상제의 오행 상생화 공사는 「호생의 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생지리(相生之理)」하에 일상적 생활에 새로운 생활법을 설파하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대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해서 열리게 된다. 난제의 근원적 요소는 상극에 따른 원이다. 이에 원을 풀어 없애는 해원시대속에서 마음가짐이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짚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 1장 9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 (교법 1장 10절)

계층간 구별을 찾는 마음을 버리고 척을 푸는 자세를 가져야 좋은 시대가 오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해원시대를 맞아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된다. 따라서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망하는 기운을 부르게 되는 상황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비천한 사람을 존대함으로써 해소됨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밋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욱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 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老天과 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교법 3장 6절)

해원은 일상적 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척을 푸는 일만이 아니라 자연계에 속하는 성수까지도 해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 세상에서 시비라는 것으로 원한을 품고 있는 만고 역신을 해원시키기 위해 성수의 속성이 쓰여지고 있다. 시비가 없는 것을 찾아 역신의 원한을 달래주고 없애는 우주적 질서의 해원의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서양 질서를 관통하는 새 원리를 다음의 해원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에게 참혹히 죽은 후

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으로 데려와서 선경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2장 37절)¹²⁾

상제께서 을사년에 함열에 계실 때이니라. 형렬을 비롯한 종도들을 거느리고 익산군 만중리 정 춘심의 집에 가서서 춘심을 명하사 선제를 지내리니 쇠머리 한 개를 사오게 하고 백지 한 권을 길이로 잘라 풀로 이어 붙이고 절반을 말아 두 덩이로 만들고 한 덩어리씩 각각 그릇에 담아두셨도다. 상제께서 밤중에 앞 창문에 두 구멍을 뚫고 쇠머리를 삶아서 문앞에 놓고 형렬과 광찬으로 하여금 문 밖에 나가서 종이 덩어리를 하나씩 풀어서 창구멍으로 들여보내게 하시고 문안에서는 종이 끝을 다시 맡으시더니 종이 덩어리가 다 풀리니라. 별안간 천둥과 같은 기적소리가 터지니라. 이 소리에 외인들도 놀랐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정 성백에게 젖은 나무 한 짐을 부엌에 지피게 하고 연기를 기선 연통의 그것과 같이 일으키게 하시고 “땃줄을 풀었으니 이제 다시 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자 별안간 방에 있던 종도들이 모두 현기증을 일으켜 흑자는 어지럽고 흑자는 구토하고 나머지 종도는 정신을 잃었도다. 이 공사에 참여한 종도는 소진섭, 김덕유, 김광찬, 김형렬, 김갑철 그리고 정성백과

12) 진묵에 대한 원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상제께서 전주 봉서산 밑에 계실 때 종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니라. 김봉곡 이시기심이 강한지라. 진묵은 하루 봉곡으로부터 性理大典을 빌려 가면서도 봉곡이 반드시 후회하여 곧 사람을 시켜 찾아가리라 생각하고 걸으면서 한 권씩 읽고서는 길가에 버리니 사원동 입구에서 모두 버리게 되니라. 봉곡은 과연 그 책을 빌려주고 진묵이 불법을 통달한 자이고 만일 유도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을 크게 행할 것을 시기하여 그 책을 도로 찾아오라고 급히 사람을 보냈도다. 그 하인이 길가에 이따금 버려진 책 한권씩을 주워 가다가 사원동 입구에서 마지막 권을 주워 돌아가니라. 그후에 진묵이 봉곡을 찾아가니 봉곡이 빌린 책을 도로 달라고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진묵이 그 글이 쓸모가 없어 길가에 다 버렸다고 대꾸하니 봉곡이 노발 대발하는도다. 진묵은 내가 외울터이니 기록하라고 말하고 잇달아 한편을 모두 읽는도다. 그것이 한자도 틀리지 않으니 봉곡은 더욱 더 시기하였도다. 그후에 진묵이 상좌에게 “내가 팔일을 한정하고 시해로서 인도국에 가서 범서와 불법을 더 익혀 올 것이니 방문을 여닫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고 곧 입적하니라. 봉곡이 이 사실을 알고 절에 달려가서 진묵을 찾으니 상좌가 출타 중임을 알리니라. 봉곡이 그럼 방에 찾을 것이 있으니 말하면서 방문을 열려는 것을 상좌가 말렸으나 억지로 방문을 열었도다. 봉곡은 진묵의 상좌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체를 방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하느냐. 중은 죽으면 화장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나뭇더미를 쌓아 놓고 화장하니라. 상좌가 울면서 말렸으되 봉곡은 도리어 꾸짖으며 살 한점도 남기지 않고 태우느니라. 진묵이 이것을 알고 돌아와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너와 나는 아무런 원수진 것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그러느냐” 상좌가 자기 스님의 소리를 듣고 울기에 봉곡이 “저것은 요귀의 소리라. 듣지 말고 손가락뼈 한마디도 남김없이 잘 태워야 하느니라.”고 말하니 진묵이 소리쳐 말하기를 “내가 끝까지 그런다면 너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동양의 모든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옮겨갔도다.(공사 3장 14,15절)

그의 가족들이었도다. 덕유는 문밖에서 쓰러져 설사를 하고 성백의 가족은 모두 내실에서 쓰러지고 갑철은 의식을 잃고 숨을 잘 쉬지 못하는지라. 이를 보시고 상제께서 친히 청수를 갑철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니 바로 그는 깨어나니라. 차례로 종도들과 가족의 얼굴에 청수를 뿌리거나 마시게 하시니 그들이 모두 기운을 되찾으니라. 덕유는 폐병의 중기에 있었던 몸이었으나 이 일을 겪은 후부터 그 증세가 없어졌도다. 이것은 무슨 공사인지 아무도 모르나 진묵(震默)의 초혼이란 말이 있도다.(공사 1장 14,15절)

진묵이 원한을 갖게 된 역사적 일화를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진묵의 해원은 그 해원을 이루는 면이 조금은 다른 면을 말해준다. 동서양을 관통하는 어떠한 이치가 해원에 있어 작용하는 가운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다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진묵은 죽음과 함께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진묵에 대한 해원의 이치는 동양적 세계와 서양적 세계를 연결지을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마두가 사후에 서양으로 건너간 일과 맥을 같이 하며 이마두에 대한 신화적 이야기에 나오듯 천상과 지하를 개방하는 작업을 통해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듯이, 진묵의 해원에 있어서도 동양으로 그를 불러오는 동서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적 세계와 이에 따르는 인간 세계에서의 일련의 새로운 질서가 있게 됨을 생각할 수 있다. 해원시대가 열리며 새로운 논리가 만드는 세계 질서의 조정과 변모는 인간사와 인간의 심성에 달라진 생활윤리를 제시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의 원리로 정립되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변모된 세계는 「진(眞)」 사상을 기저로 하고 있다.

천지공사에 의해 진경화(眞境化)되는 후천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될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제에 의해 진경화된 세계는 인존시대가 표명하듯 삼계안에서 먼저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다시 심을 인간의 중심으로 해서 존재한다. 인간 중심의 삼재적(三才的) 세계관은 인격적 차원에서 천, 지, 인이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언급한 것이다. 만약 신과 인간 그리고 사물을 나누어 별개의 존재로 본다 면 어느 하나만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삼재적 세

계는 사라지고 하나의 세계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삼재적 세계관이란 천과 지를 제외한 인간의 이기주의적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통해 천과 지가 합덕된 세계를 나타낸다.¹³⁾ 진경화되는 세계에 대한 내용을 세가지 면으로 보기로 한다.¹⁴⁾

첫째로 후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세계상은 이전의 동학과 관련해 「참동학」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동학과 관련해 상제는 동학을 긍정적 방향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당시 사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닌 과도기적 혼란에 빠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학이 이루고자 했던 세계가 역시 후천이었으나 그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상제의 강세를 통해 이루려는 세계는 동학을 「참동학」으로 만들어 이루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전대의 동학을 수용해 그것의 참 뜻을 현실화시켜 모델화된 진경세계를 구현함을 볼 수 있다.

나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 명산(朝鮮 江山 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1장 11절)

위에서 참동학이라는 말은 실패로 돌아간 동학의 문제를 직시하고 동학의 진정한 의미를 발현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동학과 동학난은 상제에 있어서는 기존 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진의를 발현시키지 못한 채 새로운 난제를 던져준 활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가라사대 “난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니 치우(蚩尤)가 작란하여 큰 안개를 지었으므로 황제(黃帝)가 지남거(指南車)

13) 이현중, 『한국철학의 역학적 조명』, 청계, 2001, 64면.

14) 이것은 진경이라는 단어에서 진(眞)자에 주목해 볼 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로써 치난하였도다. 난을 짓는 자나 난을 다스리는 자나 모두 조화롭다. 그러므로 초계우(崔濟愚)는 작란한 사람이오 나는 치란하는 사람이니라. 전명숙은 천하에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교법 3장 30절)

동학을 일으킨 최제우를 작란한 인물로, 동학난을 봉기한 전봉준을 동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앞의 인용문을 볼 때 참동학을 통해 나타날 새로운 사상이 치란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황제가 치우의 난을 평정한 역사적 사실에 비유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동학이 갖고 있는 이념이 유교에 고착된 모습으로 그 색깔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임도 찾을 수 있다. 상제가 이룩하려는 세계는 상생(相生)과 조화(調化)를 틀로 하는 세계의 구현이었다. 이에 동학의 실패속에서 상제는 참동학을 언급하고 자신이 대선생(代先生)으로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음을 밝혔다. 앞에서 상제는 동학과 동학난과 관련하여 그것이 난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언급하고 「치란(治亂)」이라는 과정을 거쳐 진법의 세계를 이루어 나감을 말하였다. 여기에서의 치란은 이마두 사후 흥기된 서양문명의 병폐를 포함한 19세기말 동학을 중심으로 야기된 삼계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상제의 강세와 천지공사로 만들어진 진법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할건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 삼층전(三層展)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三十年)을 지내다가 최 제우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

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교운 1장 9절)

위의 내용에서 인간으로 강세하기전의 상태에서 상제가 인간세상의 새로운 사상으로 발현된 것이 최제우를 통한 동학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학은 앞에서 미리 밝혔듯이 유교적 전헌(典憲)에 빠져 있었음과 그것은 상제의 생각과는 다른 사상이었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동학난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패할 것임이 예언되고 있다.

전봉준(全琫準)이 학정(虐政)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대는 흉동하여져 그들의 분노가 충천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었도다. 이 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으시고 여름 어느날 <월흑안비고 선우야둔도 옥장경기축 대설만궁도(月黑雁飛高 單于夜遁逃 欲將輕騎逐 大雪滿弓刀)>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느니라. 과연 이 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행록 1장 23절)

이와 같은 동학, 동학난에 대한 평가하에 동학의 참뜻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발현되는 이치가 참동학의 세계상을 구현시킴을 볼 수 있다. 참동학에서 우리는 앞의 진법 진리 진경의 진자가 참으로 풀이되듯이 참동학은 진(眞)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참동학에서 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동학을 진정으로 이루는 진짜 동학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이것은 참된 세계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진리에 의해 구현된 세계를 나타낸다. 기존 세계의 질서가 허례와 허식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면 이제 상제에 의해 만들지는 진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동학 운동은 바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자신의 계시로 일어난 동학의 참뜻을 직접 이루어 이상세계를 제시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참동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참된 동학의 세계라는 것은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는 이들이나 예수의 재림, 미륵의 출세를 고대하는 부류들에게 있어 어느 한사람만 오면 다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하에서 나타나며 다양하게 언급된 후천의 세계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¹⁵⁾

15)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말씀하시길 “동학 신자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

둘째 후천은 진법(眞法)의 이치에 따라 운행되는 세계이다.

세속에 전하여 내려온 모든 의식과 허례를 그르게 여겨 말씀하시길 “이는 묵은 하늘이 그르게 꾸민 것이니 장차 진법이 나리라” 하셨도다.(교법 1장 18절)

선천시대에 있었던 많은 의식이나 예법들이 잘못 시행됨으로써 큰 폐단을 가져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마두가 동양에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없었던 것도 유교적 관습과 카톨릭의 의식이 서로 맞지 않는데서 일어난 갈등이었다. 참되고 적합한 본질들이 인사의 많은 의식이나 규범에 의해 강한 통제를 받음으로써 세상에 올바른 질서가 구현될 수 없었고 묵은 하늘로 표현되는 선천 세계의 이치는 상극과 원을 야기시켜 상고시대의 바른 법이 전해져 펼쳐지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상제께서 와룡리 신 경수의 집에서 공우에게 “너의 살과 나의 살을 떼어서 쓸데가 있으니 너의 뜻이 어떠하뇨”고 물으시기에 그가 대하여 말하기를 “쓸 곳이 있으시면 쓰시옵소서” 하였도다. 그후에 살을 떼어 쓰신 일은 없으되 다음날부터 공우가 심히 수척하여 지는도다. 공우가 묻기에 “살을 떼어 쓰신다는 말씀만 계시고 행하시지 않으셨으나 그후로부터 상제와 제가 수척하여 지오니 무슨 까닭이 오니까.” 상제께서 “살은 이미 떼어 썼느니라. 묵은 하늘이 두 사람의 살을 쓰려하기에 만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배은이 되므로 허락한 것이로다”고 일러주셨도다.(공사 3장 13절)

허례와 허식은 실상을 잃어버린 제도의 남발과 외 논리를 구체화시킨 규율안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고, 이것은 묵은 하늘이 만들어 용사(用事)시킨 것이었으며 일면 인간에게 희생과 복종을 요구하는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었

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고 하셨도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79, 80, 81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 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교법 3장 26절)

류찬명이 어느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상제로부터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하는도다.(교운 1장 46절)

위에서 정치와 교화를 동시에 관장하는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법이 역사적 흐름속에서 갈라지게 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진법은 정치와 교화를 함께 관장하는 차원에서 출발됨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시대 요순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들을 찾아 복원해 세워나가는 것이 원시반본을 이루는 하나의 구체적인 노력이 된다. 따라서 신성과 같은 존재의 출현속에 임금과 스승의 역할을 하나로 다 용사할 수 있는 도통군자의 모습일 때 가능한 것이다.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칠십이(七十二)명만 통에 시켰고 석가는 오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칠일이요, 중재는 십사일이요, 하재는 이십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정치를 관장하는 임금과 교육을 하는 스승의 위치가 하나가 되는 세계는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는 내용에서처럼 선천 개벽후 존재했던 원리들의 시초를 근본으로 삼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원시반본의 이치는 몇 가지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무신년 사월 어느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 풍신((風身). 풍골(風骨) 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요.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

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행록 4장 17절)

상제가 강(姜)씨 성으로 지상에 강세하게 된 연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선천 개벽 후 있었던 인간의 성(姓)의 최초의 것을 따른 것이며 그 시초부터 잃어버렸던 새 질서가 짜여져 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선천 개벽 후 있었던 신성들에 주목해서 신성의 시대에 존재했던 법리들을 수용하여 개벽에 사용하는 것이다. 나누어져 있던 군(君)과 사(師)의 위치가 한갈래가 된다 한 것처럼 개벽은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예시 30절)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가지 주의(主義)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교법 3장 38절)

이제 서신이 사명하는 운도하에서 개벽이 일어나는데 서신은 개벽장으로 서 상제가 관장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원시반본의 상황은 천지공사라는 새로운 이치에 따라 정해지는 세계상이 제시되고 있다.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예시 30절)

천지의 성공은 진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신이 명을 주관하여 개벽을 하게됨을 밝히고 있다. 개벽은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는 말처럼 시운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한 신적 존재에 의해 일어나는 전대미증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얽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공사 1장 2절)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고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물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공사 1장 3절)

개혁의 주관자와 개혁이 필요한 이유 및 과정이 나타나 있다. 개혁의 주관자는 상제이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선천 세상이 집으로 비유해서 볼 때 무너질 지경에 처해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상의 변모는 인간에게 있어 기존의 세계와 다른 마음 가짐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진법이 구현된다는 말처럼 외부적 진법 세계에 상응하는 무자기 자세를 요구한다.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 하셨도다.(예시 30절)

위에서 개혁시대에 참된 자라는 것은 무자기 상태의 인간을 표현한다. 이러한 후천의 상황은 참된 세계로의 지향이다. 진법은 진리에 의해 작용한다. 셋째 후천은 진리(眞理)에 따른 이치로 운행된다.

진법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원리가 진리이다. 그리고 진리는 신적 존재와 연관된다. 이에 따라 진리의 판단자 실천자로서의 신의 속성이 나타나며 그것이 후천의 삼재적 통합세계에서 상도(常道)를 세워나가는 일련의 기준이 된다.

귀신(鬼神)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교운 1장 19절)

신적 존재는 외적 요소들과의 유기적 관련성 하에 위치하는 마음에 있어 관련되는 요소들은 외적 세계의 물상들이 되는데 이러한 외적 물상과 관계한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장 2절)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다」라는 내용은 천지에 있는 물상들이 신명과 일련의 연관성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이 배제된 물상과 세상사는 없으며 이것이 삼계의 법리임을 찾을 수 있다. 신이 어떠한 연고로 떠나가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나 무생물의 것이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자연 질서를 말해준다. 이렇게 모든 물상과 세상사에 관여하고 있는 신이 일련의 우주적 질서의 틀속에서 세세(細細)하게 존재하므로 그 속에서 진리의 근간을 세울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몇가지 면에서 신이 어떻게 진리의 틀을 세우고 있는지 개략해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교법 2장 36절)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교법 1장 54절)

인간에 있어서도 일상의 일에 신이 응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 차원이

인간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천상세계라는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세와 천상이 유기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은 신의 세계가 인간에게 주는 관련과 영향이 상호유기체적으로 연결되는 이치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명을 소홀히 해서 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교법 1장 66절)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교법 3장 22절)

천지공사는 후천을 이루는 것이고, 후천의 진리는 신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신이 「진(眞)」 사상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일을 판단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풍헌(崔風憲)이 말았으면 사홀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宋龜峰)이 말았으면 여덟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 아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73절)

위에서 나타나듯 신에 의한 진리에 따른다는 것은 상제가 20세기초의 혼란한 세계상속에서 삼계를 이상세계화 시키고자 했던 진리가 「신도(神道)」였던 것에서 연원(淵源)한다. 또한 상제에 대해 꿈으로 예시를 받고 상제에 의해 「청국명부(淸國冥府)」를 맡아 보게된 김일부를 통해 조선후기에 주장됐던 정역(正易)의 이치도 변화된 신도에 따른 새로운 시운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천도의 인간 주체화나 천도의 인간 주체적 자각이 모두 변화이며 그 변화 원리가 바로 천지 자연의 본성임을 표상하고 있다. 더불어 변화의 지향점이 음양의 합덕이고 그 세계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세계임도 제시하고 있다 고조선 시대의 사상은 음양이 합덕되어 음과 양으

로 규정할 수 없는 근원적 존재의 존재 원리인 신도가 근본 내용이다. 그리고 신도의 내용을 음양으로 나누어 표상한 도서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동시에 아울러 역수 원리의 내용이 360 중정역의 성취임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고조선 시대에 한국 고유 사상의 원형으로 제시된 신도 사상이 선도사상으로 출생한 뒤에 불교 사상으로 성장하고 유학으로 장성하여 『정역』이라는 위대한 저작을 낳았다. 고조선에서 씨뿌려진 신도 사상이 장성한 결과가 『정역』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⁶⁾ 이에 귀신이 진리를 판단하는 것을 가정화목 개인 윤리의 면에서 보기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신(神)의 인간 세상에 대한 연관성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의 박공우의 가정사에 관한 일화는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신이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점을 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상제께서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꿀을 찾아왔기에 별안간 꾸짖으시기를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느뇨.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교법 1장 42절)

위에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은 신명이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음은 신적 존재에 의해 수찰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신명은 인간과 함께 하며 인간의 일상 생활을 살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화기(和氣)를 잃은 인간의 곁을 비웃고 떠나가기도 한다는 내용은 인간이 가져야될 인성(人性)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명이 인간세상에서 운수라는 복록을 주기 위해 사람을 찾는데 있어 나타나는 일로 일상의 모든 삶에서 바른 품성과 화합이 중요함을 엿볼 수 있다.

사람마다 그 닻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16) 이현중, 『한국철학의 역학적 조명』, 청계, 2001, 333면.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교법 2장 17절)

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타인의 일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해 추종할 때 신명이 나를 떠나감을 말하고 있다. 인간 자신이 자기의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자기의 기국을 키워 좀 더 나은 단계의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얼마나 큰 신명이 인간에게 응하는가에 따라 인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인간에게는 신이 응하고 신에 의해 세계속에서 그의 위상이 위로 혹은 아래로 바뀔 수 있음을 찾게 된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신이 인간에 대한 윤리성을 매개로 작용하는 면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교법 1장 29절)

변모하는 시대상을 제시하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인간이 가져야될 일련의 생활 윤리를 실천적 덕목으로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이 신이라는 존재가 적극적으로 인간의 일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며 인존(人尊)의 의미를 대순사상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인존의 개념이 인간 중심만이 외부적 신과의 교감 자연과의 융합안에서 열리는 인간 존중의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보각(珠樓寶閣) 십만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 (교법 3장 44절)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절)

새로운 이치의 작용은 신명들이 인간에게 응하여 인간의 복록(福祿)을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면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주루보각 십만간을 상제가 이루어 주지만 그것이 소유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면 신명이 밀어낸다는 것과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한다는 내용들은 달라진 세계의 원리하에서 인간에게 제시되는 마음가짐과 생활 양식을 말하고 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록을 추구해 온 시대가 과거였다면 이제는 신적 요소가 생활 생활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세계상하에서 세상의 진위가 가려지고 그에 따라 신명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인간과 외적 세계와의 긴밀한 유기적 질서가 펼쳐짐을 읽을 수 있다. 마음이 신적 존재가 내재되어 있는 외부 환경에 영향받고, 새로운 시대가 만드는 이치는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요구하는 외적요소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의 존재 양상을 보고자 할 때 그것이 인간의 존재성과 늘 같이 한다는 점에서, 특정하게 마음 이외의 어떤 것에 주목해서 논의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마음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요소들의 작용으로 넓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인간의 마음에 귀합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IV. 眞心으로의 修心

「이정심법(理定心法)」의 틀 안에서 마음에 대한 외부적 환경의 영향과 관련하여 앞장에서 살펴본 천지공사아래 「신운(新運)」의 리(理)중 참동화의 구현 그리고 진법과 진리하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진경(眞境)」이라는 의미는 곧 무자기와 같은 맥락에서 「참되다」는 진(眞)이 후천세계를 관통하는 질서임을 나타낸다. 이점에 입각해 볼 때 수심의 궁극적 성향(性向)이

「진심(眞心)」으로 귀결됨을 말할 수 있다. 이에 첫째 진심과 무자기의 동의성(同意性)하에서 「대학」에 나타난 「무자기」의 내용과 둘째로 진심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무자기는 스스로 속임이 없다는 뜻으로 진실성을 나타낸다. 「대학」에서 무자기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른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 없는 것이다. 악취를 미워하는 것 같이 하며 호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니 이것을 자겸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삼간다.(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 君子 必慎其獨也)

여기에서 성의가 무자기로 나타난다. 뜻을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의는 신독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자기(自欺)에 대해서 주자(朱子)의 주(註)에서 「스스로를 속임은 선함을 행하여 악함을 제거함을 알되 마음의 발(發)하는 바가 아직 실(實)이 없는 것이 있음(自欺云者 知爲善以去惡 而心之所發 有未實也)」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를 닦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실제로 힘을 써서 선과 악에 있어서,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여 스스로에게 만족하게 하여야 하며, 실하고 실하지 못함에 있어서는 자기만이 홀로 아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이점을 살펴서 그 기미를 살펴야 한다(欲自修者 知爲善 以去其惡 則當實用其力 而禁止其自欺 使其惡惡臭 好善則如好好色 皆務快去 而求必得之以自快足於己 不可徒苟且以恁外而爲人也 然其實與不實 蓋有他人所不及知而已獨知之者 故必謹之於此 以審其幾焉)」고 주자(朱子)는 밝히고 있다.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식이 지극한 뒤에 뜻이 성실히 진다 하였으니 심체의 밝음이 미진한 바가 있으면 그 발하는 바가 반드시 반드시 실제로 그 힘을 쓰지 못하여 구차하게 스스로 속임이 있는 것이다.(欲誠其意 先致其知 知至而后意誠 蓋心體之明 有所未盡 則其所發 必有不能實用其力 而苟焉以自欺者)(「대학」)

대개 뜻이 성실히 되면 참으로 악이 없고 진실로 선이 있을 것이니 이 때문에 능히 마음을 보존하여 그 몸을 단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혹 다만 성의만을 알고 이 마음의 보존되고 보존되지 않음을 치밀히 살피지 못한다면 또 안을 곧게 하여 몸을 닦을 수가 없다 (蓋意誠 則眞無惡而實

有善矣 所以能存是心 以檢其身 然或但知誠意 而不能密察此心之存否 則
又無以直內而修身也)(『대학』)

위에서 성(誠)하기 위해서는 선(善)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마음이 존재하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다면 수신까지 나아갈 수 없음도 보이고 있다. 이점은 중용에서도 성에 대해 선(善)을 고집하는 것이라(「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中庸』 20章)하여 대학과 함께 그 연원을 선(善)으로 같이 하고 있다. 『중용』의 '성(誠)'은 결국 일종의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정감의식 혹은 진실한 도덕정감이다. 정감에서 출발하여 도덕 인성론을 세우는 것은 진실한 정감을 사람의 참다운 성정으로 삼는 것인데 이는 유가심성론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동시에 그것은 이러한 정감에 이성이나 초이성의 성질을 부여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보편적이고 초월적이며 선험적인 본체, 또는 우주정신으로 변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심'은 개별체의 심이자 우주의 심이고 개체 정감의 필요이자 보편적인 도덕법칙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개별성을 보편성으로 끌어 올렸는데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존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실제로 일종의 정신경계이다.¹⁷⁾

무자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실(實)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과 악의 구분을 하여도 마음으로 실재(實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내용은 대순사상에 있어 나의 마음이 천지보다 더 커지기 위한 마음 자세와 그 맥을 같이 함을 볼 수 있다.

마음은 귀신의 추기 문호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출입하고 도로를 왕래하는 신이 혹은 선하기도 혹은 악하기도 하니 선한 것은 스승 삼고 악한 것은 고치라.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더 크다.(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 神 惑有善 惑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행록 3장 44절)

위에서 마음이 귀신의 추기 문호 도로가 되는데 그 신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에서 성의에 대한 주자(朱子)의 주(註)에서 「스스로를 속임은 선함을 행하여 악함을 제거함을

17) 蒙培元, 『中國心性論』, 法人文化史, 1996, 224-225 면.

알되 마음의 발(發)하는 바가 아직 실(實)이 없는 것이 있음(自欺云者 知爲善以去惡 而心之所發 有未實也)」이라고 말한 내용과 의미가 통하고 있다. 마음에 작용하는 신에 대해 선과 악을 알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상태는 선한 것을 스승삼고 악한 것을 고치는 실제적인 실천적 마음이다.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가 천지보다 더 크다.(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라는 주장처럼 인간의 마음이 천지보다 더 커지는 진정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점은 대학에서 무자기에 대해 언급한 실과 미실이 사지와 개지라는 인간의 적극적 노력으로 열리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실(實)은 각도문에서 언급한 성인의 경전에서 구할 것이 진리이고 진인이 구하고자하는 것이 실의 의미와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루트 성인의 경전은 문장의 색채를 구하지 않고 그 진리를 구했으며 진인의 마음은 그 실을 구했지 겉꾸밈을 구하지 않았다. 물상의 사리를 구한다면 그 천연을 구하고 조작을 구하지 않았다.(夫聖人之經典 不求文章之色彩 而求其眞理 眞人之心 求其實而不求外飾 求其物之事理 則求其天然而不求造作也)(교운 2장 33절)

이와 함께 문장에서 구할 것이 성인의 심법이고 외식에서 구해야 할 것이 성인의 진실이나 얻기 어려움도 말하고 있다.

문장에서 구하는 것은 성인의 심법이나 얻기 어렵고 겉꾸밈에서 구하는 것은 성인의 진실이나 얻기 어렵다.(求於文章者 聖人之心法 難得 求於外飾者 聖人之眞實 難得)(교운 2장 33절)

우리가 진리와 성인의 진실을 구하고, 성인의 심법을 구하고 천연을 구하며, 진인의 마음이 실을 구한다는 내용들은 앞의 대학에서 언급한 마음에 실이 있어야함을 무자기로 설명한 부분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할 때 무자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성인의 심법과 성인의 진실이며 진실과 실이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앞장에서 마음과 관계되는 세계의 모습이 어떠한냐를 따라 마음이 일련의 방향성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수심의 방향성은 진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적에서 마음과 관련된 부분은 무자기 정신개혁이다. 이것은 목적에 위치하며 대순사상에서의 마음 상태의 정점을 말하는 내용이 된다. 이에 따라 수심의 방향도 진심이라는 단어로 집약되어 나아가야 하는 필연성을 보여 준다.

진심은 진법이 구현되는 진경 세계에서 인간이 가져야될 마음 자세이다. 스스로 속임이 없는 무자기로 정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진심을 간직함을 말한다. 그리고 진심은 인간의 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진법이 구현된 진경의 세상에서는 진실성이 인간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그에 따라 인간에게 복이 따르게 됨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수심의 궁극적 상태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진심으로 귀일되어야 함을 찾게 된다. 신조의 사강령도 진심으로 가기 위한 수행 과정임을 볼 수 있다. 성경신도 진심을 이루기 위한 요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화에서 「도기장존사불입」을 언급한데 대해 진심을 강조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최수운의 가사에 “도기장존사불입(道氣長存 邪不入)”이라 하였으나 상제께서는 “진심견수복선래(眞心堅守 福先來)”라 하셨도다.(교법 2장 3절)

진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도기가 장존해 있어 사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보다 더 나은 마음의 위상임을 보이고 나아가 복을 부르는 최선의 길임을 알 수 있다. 진심이 무엇보다 인간에게 강조되어야할 마음가짐임을 찾을 수 있다. 이점에서 복과 관련지어 볼 때 진심은 일심의 상태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마음의 위상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배풀어주리라.(교법 2장 4절)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교법 2장 5절)

인간의 복록이나 성공이 일심에서 있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이 먼

저 온다는 복선래의 상태인 진심보다는 일심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며, 진심이 수심의 궁극적 지향점임을 알 수 있다.

최중에 노름의 죄가 크나니라. 다른 죄는 혼자 범하는 것이로되 노름 죄는 남까지 끌어들이고 또 서로 속이지 않고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니라.(교법 1장 58절)

남을 속이지 말 것이니 비록 성냥갑이라도 다 쓴 뒤에는 빈 갑을 반드시 깨어서 버려야 하나니라.(교법 1장 57절)

무자기로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 일상에서의 잘못된 생활자세가 지적되고 있다. 죄중에서도 노름죄가 가장 크다는 언급은 그것이 남을 속이는데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많은 언행들이 거짓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쓴 성냥갑을 버릴 때도 그것을 남이 모르고 성냥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게 버려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속이려 하지 않은 행위였다 하여도 타인의 입장에서는 모르고 속는 입장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까지 강조하고 있다. 의식적 노름이건 의식하지 않은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거나 늘 무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교법 2장 7절)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정직임을 말하고 있다. 선행적 믿음을 상제에게 보이고 자신을 정직히 하는 이는 하늘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정직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진심을 가진 무자기 상태를 가리킨다. 바르고 곧은 인간상은 진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우위에 서는 인존의 가치하에 도통군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천지인의 일들을 용사하는데 있어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하셨도다.(교법 1장 21절)

남의 것을 탐내 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선량한 양심(良心)에 따르지 않고 사심(邪心)에 따라 움직임을 나타낸다. 양심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무자기 상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탐심(貪心)이 없어진 진실한 본연의 마음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원천임을 말해준다. 마음을 간직해 그것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일상에서 무척 어려운 경지임을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교법 2장 6절)고 하여 밝힌 부분에서 진심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대단히 어려운 차원임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무자가 거짓없는 참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심과 관련 대순사상의 목적의 하나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수심에 있어 마음 가짐의 궁극적 방향성을 진심(眞心)에 두고 있음을 말해 준다.

V. 결론

이 글은 마음에 관계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대순사상의 목적중 무자기와 관련해 수심의 방향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각도문의 내용에 나타나는 도에 대한 언급과 도를 깨닫는 바른 방법에 나타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삼계에 존재하는 마음은 이(理)의 작용하에 있게 된다. 도(道)가 천지를 바르게 하고 수(數)가 모든 법을 정하였으며 이는 마음의 법을 정하였다. 「이정심법(理定心法)」은 이와 마음과의 관계에서 이가 마음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보면 세계의 모든 현상과 물상의 존재가 정해진 이치안에서 있게 됨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치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궁리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린다는 내용은 이점을 또한 설명하는 것이다. 각도문에 「이정심법(理定心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치가 심법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의 법이 외부적 이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으로 삼계의 이치가 마음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한다는 말에서 이가 심에 우선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심에 있어 이를 우위적 위치에 두고 있다. 마음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이는 마음이 있기 이전에 이미 삼계에 작용하는 원리이다.

이에 이의 작용을 찾아보면 그것은 인간 존재로 확장해서 볼 수 있고, 첫째로 천지공사를 통해 선천이 후천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을 언급한 부분, 둘째로는 마음에 대한 신의 작용, 셋째로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들에 작용하는 것들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새로운 시대는 개혁시대, 인존시대, 신명시대, 성인시대, 해원시대로 나타난다. 먼저 시대적 변모는 개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혁된 세계는 참된 자를 요구한다. 복과 삶을 구하는 이는 성숙되기 위해 개혁시대의 외부적 요소들의 작용에 자신을 참된 자로 맞게 만들어서 의로운 이로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인 인존시대(人尊時代)는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위에서 제시한 참된 자로서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인존시대는 천지보다 인간이 더 존귀한 시대임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마음을 부지런히 하는 일이다. 마음을 새로워진 환경에 맞추어 나가야 인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존시대와 함께 나타나는 시대가 신명시대(神明時代)이다. 신명시대는 인간에게 또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에 인간의 마음이 신명에 의해 통제받는 변모가 있게 된다. 신명이 인간의 죄를 살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천시대는 죄로써 먹고사는 영웅시대였으나 성인시대의 새로운 운기를 맞이하게 되어, 인간의 가치관이 선을 추구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됴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자기와 관련된 수심의 방향으로 진심을 말하고 현실적 세계에서 변화를 참동학을 후천선경의 실제적 구현으로 보아 진심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이치로 논했으며, 또한 진법 그리고 진리에 지극한 신의 관련성 등이 진심에 작용하는 이치로 보았다. 이것은 이정심법에서 도통진경 지상 천국의 목적화된 세계상속에서 작용하는 이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그것들이 진심으로의 심법을 결정짓는 이치로 작용했음을 보인 것이 된다.

대학의 무자기에 대한 내용은 내용은 대순사상에 있어 나의 마음이 천지보다 더 커지기 위한 마음 자세와 그 맥을 같이 함을 볼 수 있다. 마음이 귀신의 추기 문호 도로가 되는데 그 신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작용하는 신에 대해 선과 악을 알아야 하

며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상태는 선한 것을 스승삼고 악한 것을 고치는 실제적인 실천적 마음이다.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가 천지보다 더 크다.(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라는 주장처럼 인간의 마음이 천지보다 더 커지는 진정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점은 대학에서 무자기에 대해 언급한 실과 미실이 사지와 개지라는 인간의 적극적 노력으로 열리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에서의 실(實)은 각도문에서 언급한 성인의 경전에서 구할 것이 진리이고 진인이 구하고자하는 것이 실의 의미와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에서 구할 것이 성인의 심법이고 외식에서 구해야할 것이 성인의 진실이나 얻기 어려움도 말하고 있다. 진심은 진법이 구현되는 진경 세계에서 인간이 가져야될 마음 자세이다. 스스로 속임이 없는 무자기로 정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진심을 간직함을 말한다.



【참고문헌】

- 『大學 中庸』, 보경문화사, 1990.
- 금장태, 『다산실학탐구』, 소학사, 2001.
- 大巡眞理會 敎務部, 『典經』, 大巡眞理會 出版部, 1974.
- 蒙培元, 『中國心性論』, 法人文化史, 1996.
- 아라키젠고 지음/김석근 옮김, 『불교와 양명학』, 서광사, 1993.
- 尹絲淳, 『퇴계철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 이현중, 『한국철학의 역학적 조명』, 청계, 2001.
- 蔡茂松, 『퇴계율곡철학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